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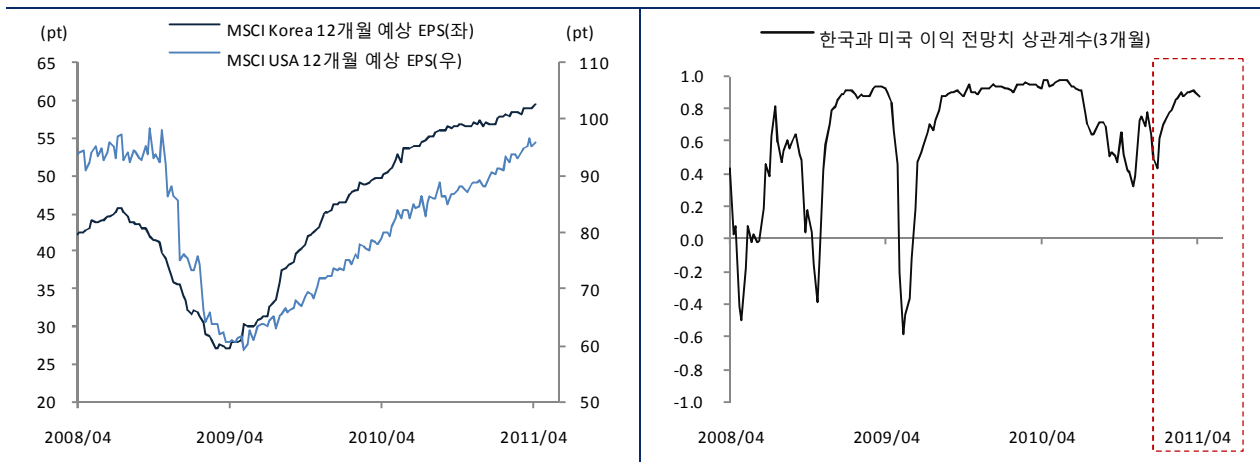
## 美 어닝시즌에서 얻는 주가 힌트

정승재 (02)3774-6031 / aries770322@miraeasset.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금일), 옵션 만기(금주 목요일) 앞두고 시장 한 템포 쉬어 갔던 모습. 하지만 단기 이벤트보다 주목할 변수는 미국 1분기 어닝 시즌.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한 발 앞서 금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

통상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는 국내 시장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명을 받아오곤 했음. 실제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와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각국 MSCI 12개월 예상 EPS 기준) 사이 상관성이 연초 이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 어닝 시즌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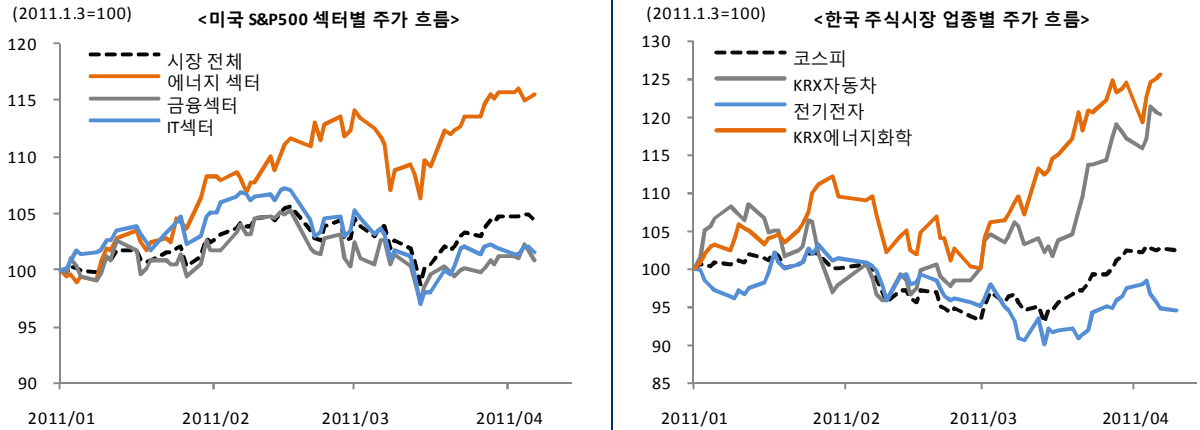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한국과 미국 이익 전망치 간 상관성 높아지고 있음



주: 한국과 미국 이익 전망치는 각국 MSCI 12개월 예상 EPS 기준, 3개월 상관 계수  
자료: IBES, DataStream,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하지만 이번 미국 어닝 시즌의 경우, 막연하게 시장 모멘텀으로 기대되기보다 업종별 주가 흐름 상 힌트를 구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갈. 우선 미국 기업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지수 흐름에 반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일본 지진 이후 반등-전고점 돌파-현재 숨 고르기' 상태인데, 특히 지진 발생 이후 반등 국면에서 달리는 말만 달리고 있는 점이 눈에 띈. 국내는 정유와 자동차, 미국은 정유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짐. 공통점은 일본 지진에 따른 상대적 수혜 기대감을 제외하고도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그림 2] 한국과 미국 모두 달리는 말(馬)만 달리고 있는 상황



주: 한국과 미국 모두 연초 주가를 100포인트로 환산 비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미국 S&P500 지수의 업종별 주당순이익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준)을 보면 정유가스업종의 이익개선 두드러지고 있음.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업종 제외하면 1분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1분기 이후에도 이익개선 양호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참고로 은행주의 1분기 주당순이익 개선은 수치상 가장 크지만, 업종 내 편차가 큰 점은 부담. 표 2 참고). 반면 자동차 등 경기소비재와 IT(반도체) 업종의 경우 1분기 이후 2분기 이익 개선 기대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 실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시장에서 지수가 탄력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보다 업종별 차별화 흐름 이어갈 가능성 있음. 당분간 국내 시장 역시 미국의 1분기 어닝시즌 효과에 편승하기보다 1분기 이후에도 이익개선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화학, 에너지) 중심으로 차별적 강세 보이는 장세 이어갈 가능성 열어둘 필요

[표 1] S&P 500 업종별 EPS 전망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11 Q1(E)	2011 Q2(E)	2011 Q3(E)	2011 Q4(E)
시장 전체	12.1%	12.1%	15.6%	16.0%
자동차	3.9%	-20.6%	-12.0%	17.6%
유통	8.7%	14.6%	17.1%	14.3%
식음료	1.0%	5.0%	6.3%	8.9%
에너지장비	14.8%	28.1%	42.5%	25.5%
정유가스	32.5%	29.2%	45.7%	24.7%
은행	91.4%	24.7%	20.3%	23.4%
보험	9.3%	5.8%	3.9%	60.7%
헬스케어 서비스	-1.6%	2.1%	3.7%	9.5%
자본재	24.6%	13.3%	17.0%	16.1%
운송	19.5%	17.2%	18.9%	19.3%
반도체	9.4%	-2.4%	1.4%	10.7%
소프트웨어	19.5%	13.0%	13.8%	9.8%
하드웨어	16.9%	15.8%	11.9%	8.3%
소재	26.3%	30.7%	20.4%	35.6%
통신	-5.9%	1.7%	16.1%	19.7%

주: 시장 컨센서스로 Bloomberg 기준. 추정 일자는 2011년 4월 8일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표 2] 미국 기업 2011년 1분기 실적 발표 일정

발표일	발표시간	종목	2011 Q1 EPS(E)	2010 Q1 EPS(A)	YoY	2010 Q4 EPS(A)	QoQ
4월 11일	장마감	알코아	0.27	0.10	170.0%	0.21	28.6%
4월 13일	개장전	JP모건체이스	1.17	0.74	58.1%	1.12	4.5%
4월 14일	장마감	구글	8.13	6.76	20.3%	7.81	4.1%
4월 15일	개장전	BofA	0.28	0.28	0.0%	0.04	600.0%
4월 18일	개장전	씨티그룹	0.10	0.15	-33.3%	0.04	150.0%
4월 19일	개장전	골드만 삭스	3.80	5.59	-32.0%	3.79	0.3%
		존슨&존슨	1.27	1.29	-1.6%	1.03	23.3%
	장마감	IBM	2.30	1.97	16.8%	4.18	-45.0%
4월 20일	개장전	인텔	0.47	0.43	9.3%	0.59	-20.3%
		야후!	0.16	0.22	-27.3%	0.24	-33.3%
		AT&T	0.58	0.59	-1.7%	0.18	222.2%
	장마감	모건 스탠리	0.46	1.03	-55.3%	0.41	12.2%
4월 21일	개장전	웰스 파고	0.66	0.45	46.7%	0.61	8.2%
		애플	5.32	3.33	59.8%	6.43	-17.3%
		포드차	0.48	0.46	4.3%	0.05	860.0%
		허니웰	0.82	0.50	64.0%	0.47	74.5%
		맥도날드	1.14	1.03	10.7%	1.16	-1.7%
	트래블러스	1.57	1.22	28.7%	1.89	-16.9%	
장마감	버라이즌	0.51	0.56	-8.9%	0.54	-5.6%	
4월 25일	장마감	아마존닷컴	0.61	0.66	-7.6%	0.91	-33.0%
		샌디스크	0.98	0.95	3.2%	1.27	-22.8%
4월 26일	장마감	텍사스인스트루먼트	0.58	0.52	11.5%	0.78	-25.6%
4월 26일	개장전	3M	1.45	1.47	-1.4%	1.28	13.3%
		듀폰	1.36	1.24	9.7%	0.5	172.0%
		UPS	0.85	0.71	19.7%	1.08	-21.3%
4월 27일	개장전	보잉	0.74	0.70	5.7%	1.11	-33.3%
	장마감	스타벅스	0.34	0.29	17.2%	0.45	-24.4%
4월 28일	개장전	엑손모빌	1.86	1.37	35.8%	1.85	0.5%
	장마감	마이크로소프트	0.56	0.45	24.4%	0.77	-27.3%
4월 29일	개장전	머크	0.84	0.83	1.2%	-0.17	흑전
5월 3일	개장전	화이자	0.58	0.60	-3.3%	0.36	61.11%

주 1: (E)는 예상치, (A)는 실제치

주 2: EPS 단위는 US Dollar

주 3: (E)는 시장 컨센서스로 Briefing.com 2011년 4월 8일 기준

자료: Bloomberg, Briefing.com,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리서치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자산운용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과거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